

측부혈관의 특성에 따른 위식도정맥류의 특성 분석 (자기 공명 혈관 조영술을 중심으로)
박철희*, 전훈재, 김경오, 정복선, 김용식, 김영선, 진운태, 이홍식, 이상우, 임순호, 최재현, 김창덕, 류호상, 현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목적: 식도와 위정맥류의 발달에는 여러 측부혈관의 주행과 발달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위식도정맥류의 측부순환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원에 내원한 문맥압항진증 환자 중 위식도정맥류가 동반된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위정맥류에 대한 치료 전 상태를 Gadolinium으로 조영증강하며 MIP(maximum intensity projection)를 이용한 다면적 재구성 영상으로 문맥-전신 순환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성격: 정맥류의 원인 질환은 알코올과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이 108명(90%)이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1.7세, 남자 96명, 여자 24명 이었다. Child-Pugh 분류로는 Child A 63명(52.5%), Child B 45명(37.5%), Child C 12명(10%)이었다. 위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만 관찰되는 군(EV)은 12명(10%), 식도정맥류가 위정맥류보다 발달한 군(EV>GV)은 33명(27.5%),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는 군(EV=GV)은 45명(37.5%), 위정맥류가 발달한 군(EV<GV)은 18명(15%), 위정맥류만 관찰되는 군(GV)은 12명(10%)이었다. 자기 공명 혈관 조영술로 좌위정맥, 후위정맥, 단위정맥, 위-신단락, 비-신단락 등을 관찰하였으며 측부혈관의 중증도는 지름 5mm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측부혈관의 특성과 위식도정맥류의 발달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결론: 단위정맥은 위정맥류의 발달에 중요하며 위신단락은 위정맥류의 주요 배출혈관이고,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위식도정맥류의 측부순환계 분석은 정맥류의 병태생리 연구 및 치료에 유용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Variceal Types and Its Collateral Veins

Type of varices	Type of collateral veins				Total
	LGV(>5mm)	SGV(>5mm)	GRS(>5mm)	SRS(>5mm)	
EV	6(50%)	3(25%)	0	3(25%)	12
EV>GV	18(54.6%)	0	3(9.1%)	6(18.2%)	33
EV=GV	30(66.6%)	3(6.7%)	6(13.4%)	6(13.4%)	45
EV<GV	12(66.6%)	9(50%)	9(50%)	6(33.4%)	18
GV	6(50%)	3(25%)	6(50%)	3(25%)	12
Total	72(60%)	18(15%)	24(20%)	24(20%)	120

EV: esophageal varices, GV: gastric varices, LGV: Lt gastric veins, SGV: short gastric veins,
GRS: gastrosplenic shunt. SRS: splenoportal shunt

위종양의 발생인자;위염의 조직학적 정도와 위종양 발생의 상관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내과, 해부병리과[†], 의학통계학교실[‡]

박경천*, 이창형, 유길중, 권중구, 김은영, 김호각, 배정동, 조창호[†], 신원희[‡]

목적: H. pylori감염, 위염의 조직학적 정도 및 장형화생과 위종양의 발생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위종양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찾기위해 본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1998년 9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통한 생검을 통해 선암증으로 진단된 94예(미만형 48예, 장형 28예, 혼합형 18예), 선종 31예 그리고 대조군으로 정상 및 경미한 만성위염을 보이는 4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병변으로부터 2cm이상 떨어진 부위의 진정부와 체부에서 채취한 조직을 대상으로 위염의 조직학적 정도 및 CLO 검사를 시행하였다. 생활정도, 음주력, 흡연력, 위암발생가족력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시행하였다. 결과: H. pylori감염 양성률은 각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선종, 위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를 규명하기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령, 성별, 체부위축, 체부장형화생, 술, 흡연, H. pylori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들 유의한 변수를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위선종의 발생에는 체부장형화생이 유의하였고(Odd ratio 3.397), 위암의 발생에는 체부장형화생과 연령(Odd ratio, 2.654, 1.049)이 유의하였다. 결론: 연령, 성별, 체부위축, 체부장형화생, 술, 흡연이 위종양발생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생각되고 위선종은 체부장형화생이, 위암은 체부장형화생과 연령이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생각된다.